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17



▶ 18회 예고
탁실라에서 돌아온 친위대장은 빈두사라왕에게 부왕 수시마가 대신들의 농간에 휘둘리고 있다고 보고한다. 놀란 빈두사라왕은 아쇼까를 즉시 파견하라고 명령한다. 아쇼까는 자신의 아들 꾸날라가 태어난 날 탁실라로 떠난다.

탁실라 부왕이 된 '수시마'

수시마는 빠딸리뿌뜨라성에 있는 것보다 훨씬 행복했다. 반란군을 진압할 때 자신을 도왔던 탁실라왕의 두 동생 망갈라로이와 삐띠로이가 측근이 되어 모든 정사를 도와주었기 때문이었다. 망갈라로이 형제는 하루 종일 수시마 좌우를 지키며 조언해주었다.

"부왕이시여, 흉년이 들었으니 성민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오."

"부왕이시여, 성 밖의 목동들이 도둑들에게 양과 염소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군사를 보내 도둑들의 약탈을 막아주십시오."

"군사를 보내 도둑을 잡아 벌하시오."

망갈라로이 형제는 조언을 계속했다.

"술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것입니다. 성민들에게 술을 하사하시면 부왕님을 더욱 믿고 따를 것입니다."

"맞소. 술이란 사람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명약이오."

사람이 술에 취하면 고통을 잠시 잊고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법이었다. 망갈라로이 형제는 성민들의 불만을 술로 해결하려고 했다.

두 형제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친위대장은 두 형제가 수시마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늙은 친위대장은 빠딸리뿌뜨라에서부터 수시마를 호위했던 선봉대장 출신이었다. 그 역시 망갈라로이 못지않게 수시마가 신임하는 대신이었다. 망갈라로이 형제가 잠시 궁을 나가자, 친위대장이 수시마에게 다가갔다.

"부왕이시여, 대신들의 보고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현장을 나가보시면 금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대신은 때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마는 충언하는 친위대장을 물리치지 못하고 난처해했다. 친위대장을 지그시 쳐다보던 수시마가 한 마디 했다.

"이제, 친위대장도 흰머리가 많구먼. 빠딸리뿌뜨라를 떠날 때는 머리카락이 까마귀처럼 검었는데."

"흰머리는 세월이 주는 훈장이라고 했습니다. 소장은 훈장 값을 하고 있는지 늘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그대가 고지식해서 때로는 불편하지만 그래도 가족 같으니 그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오."

"부왕이시여, 소장을 가족같이 생각하신다니 더욱 충성을 다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보고할 것이 있다니 말해보시오."

늙은 친위대장은 잠시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닦았다. 망갈라로이 형제에게 모든 정사를 맡겨버리다시피 한 수시마가 안타까워 탁실라를 몇 번이나 떠날까 하고 생각했지만 빈두사라왕이 떠올라 그러지 못했던 것이다. 빈두사라왕이 탁실라로 향할 때 성문 밖까지 나와서 부왕 수시마를 잘 보좌하라고 신신당부했기 때문이었다.

"보고를 받으시겠다니 고맙습니다. 귀에 거슬리시더라도 잠시만 참아주십시오."

수시마가 짧게 보고하라는 몸짓을 했다. 그럴 때마다 수시마는 의자 팔걸이를 손으로 탁탁 쳤다. 그러나 친위대장의 보고는 길어졌다.

"망갈라로이 대신이 세금을 감면하라고 했지만 공평하게 집행하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망갈라로이 대신은 탐욕스럽습니다."

"어찌 그렇게 짐작하오?"

"전 탁실라왕 때에도 세금을 감면해 주는 만큼 성민들에게 뒤로 챙겼다고 합니다. 그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친위대장이 확인을 잘하면 될 일이 아니오?"

"열 사람이 지켜도 도둑 하나를 잡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곳 출신이 아닌 소장이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소?"

"망갈라로이 대신을 쉬게 하고 이제는 직언하는 충신을 써야 합니다."

"의리를 지켜야 하오. 나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그런 부왕이 되기 싫소."

"정사에 임하실 때는 자애로운 마음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얼음처럼 차가워야 합니다. 그래야 왕명이 서는 것입니다. 아버님인 대왕님을 거울로 삼으십시오."

"친위대장이여, 대왕님의 잔인한 모습을 보고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할 때가 많았다오."

수시마는 빈두사라를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했다. 빈두사라가 신하들을 참혹하게 죽이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던 것이다.

"또 보고하겠습니다. 삐띠로이 대신이 목동들에게 군사를 보내겠다는 것은 속셈이 따로 있습니다. 목동들을 위협해 자릿세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군사를 보내지 마십시오. 목동들은 멀리 풀을 찾아 떠나고 말 것입니다. 목동들이 떠나면 성민들은 우유와 양털을 얻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대신을 달래보겠소. 또 무슨 보고가 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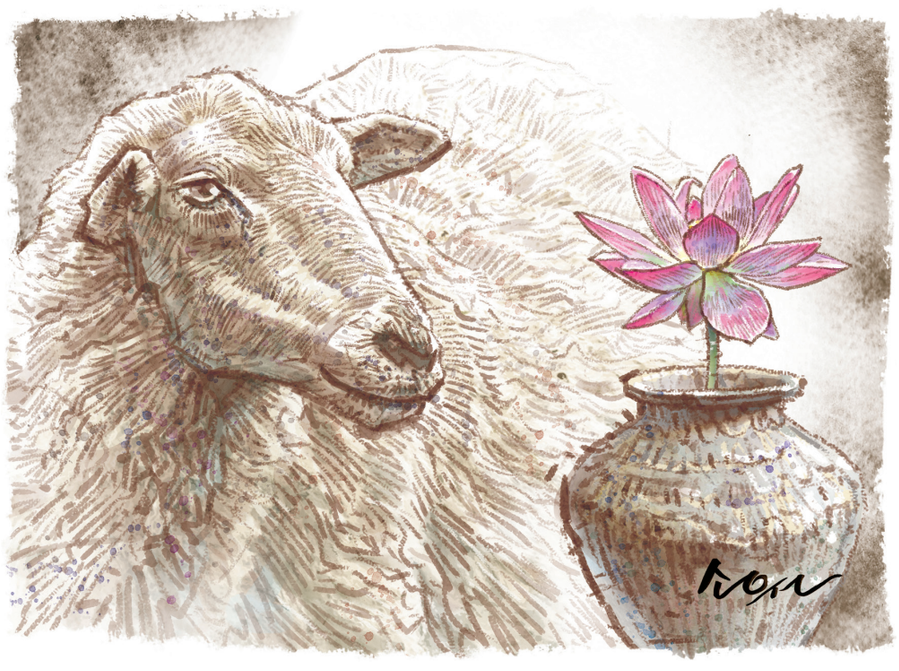
"피곤하시지만 계속 보고하라고 하시니 고맙습니다. 성민들에게 술을 내리는 것도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성민을 취하게 하는 것이 어찌 좋은 정치이겠습니까? 그보다는 우물을 많이 만들어 성민들이 물 걱정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정치일 것입니다."

"술보다는 마실 물이 더 중요하겠지요. 당장 대신을 불러 지시하겠소."

친위대장은 수시마의 눈치를 보며 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친위대장의 보고는 하루 이틀 지나면서 유야무야되었다. 망갈라로이 형제가 친위대장을 경계하는 눈빛만 더 날카로워졌다. 망갈라로이 형제와 친위대장이 갈라서기 시작한 것은 몇 달 전부터였다. 그 전에는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딪치지 않고 웃음이 오갔던 것이다.

그런데 흙바람이 하늘을 뒤덮은 날이었다. 망갈라로이 형제와 친위대장이 부왕 수시마 앞에 모였을 때였다. 망갈라로이 형제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자리였다. 삐띠로이가 말했다.

"부왕이시여, 외롭지 않습니까?"



"빠딸리뿌뜨라를 떠난 지 2년이 다돼 가고 있소. 때로는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다오."

삐띠로이에 이어 친위대장이 말했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고 가는 것은 오직 대왕님의 명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부왕님의 마음은 바위 같아야 합니다."

"소장의 말이 맞소. 그러니 부왕님을 우리가 더 보좌하자는 것이오."

"어떻게 보좌하자는 말씀인가요?"

망갈라로이도 한 마디 했다.

"보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아마도 삐띠로이 대신의 속마음을 잘 모르겠소만 부왕님께서 여성이 그립지 않을까 하는 충정에서 한 말인 듯하오."

"신하와 군사들만 오가는 궁이 답답한 것은 사실이오."

수시마가 망갈라로이 형제의 말에 수긍하는 듯한 말을 했다. 그러자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삐띠로이가 말했다.

"성민 중에 방정한 여성이 있습니다. 부왕님께서 반드시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늙은 친위대장은 놀라고 말았다. 망갈라로이 형제가 추천한 여성이 궁에 들어온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 친위대장이 망갈라로이의 말을 잘랐다.

"당치 않은 말씀이오. 빠딸리뿌뜨라에는 부왕님과 미래를 약속한 부인이 계시오. 부왕님을 욕되게 하지 마시오."

망갈라로이 형제가 당황하자 수시마가 중재했다.

"대신이 나를 욕되게 할 의도가 어디 있겠소. 나를 위한 충정에서 한 말이겠지요. 그러니 친위대장이 심한 말을 한 것이오. 대신에게 사과를 하시오."

"부왕이시여, 소장은 사과할 마음이 없습니다. 잠시만 궁을 물러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수시마는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친위대장을 내보냈다. 그런 뒤 망갈라로이에게 말했다.

"장수라서 말을 직선적으로 하는 사람이니 이해하시오. 친위대장도 나를 위한 충정에는 변함이 없는 사람이오."

"친위대장이 소신의 말을 왜곡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만 부왕님께서 저의 충정을 믿어주시니 위로가 됩니다."

수시마 앞에서 도량이 넓은 듯 말했지만 망갈라로이는 이를 부드득 갈았다. 친위대장 역시 망갈라로이 형제를 예전과 다르게 주시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감시했다. 부하를 시켜 그들이 가는 곳과 만나는 사람을 보고하게 했다. 세금감면이란 미끼와 목동의 자릿세도 부하들이 밝혀낸 그들의 비리였다.

망갈라로이 형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친위대장에 대한 허물을 찾기에 모든 힘을 쏟았다. 친위대장에게도 군사들이 원망하는 약점은 있었다. 탁실라의 토착군사들은 빠딸리뿌뜨라에서 온 군사들보다 대접받지 못한다고 불만이 컸다. 망갈라로이가 수시마에게 보고했다.

"탁실라 군사들은 빠딸리뿌뜨라 출신군사보다 헐벗고 굶주리어 원성이 큽니다."

"배고픈 군사가 있다는 말이오?"

"군관들은 배부르고 군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친위대장 소관이 아닌가요?"

"친위대장이 군사들의 힘을 합쳐도 모라랄 판에 편을 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시마는 직언만 하여 자신을 불편하게 해온 친위대장을 이번 기회에 빠딸리뿌뜨라로 보내고 싶었다. 친위대장만 눈앞에서 사라지면 미모의 여인을 잠자리로 불러들일 수 있고, 대신들과의 갈등도 해소될 것 같았다.

때마침 수시마에게 기회가 절로 찾아왔다. 빠딸리뿌뜨라에서 빈두사라가 보낸 특사 일행이 왔다. 수시마를 위로하고 탁실라의 정세를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수시마는 특사만 궁으로 은밀히 따로 불러 빈두사라왕에게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대왕님께 꼭 전해주시오."

"돌아가서 직접 전하겠습니다."

"대왕님의 안부를 묻는 편지이지만 비밀로 해주시오."

그러나 수시마가 특사에게 한 말은 거짓이었다. 안부를 묻고 있기는 했지만 정작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친위대장을 소환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망갈라로이 형제와의 암투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친위대장은 수시마 곁에서 멀어졌다.

한 달 후.

친위대장은 소환장을 받고 몇 명의 군관만 데리고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갔다. 친위대장은 빈두사라왕을 만나 사실을 보고했다. 빈두사라는 수시마에게 실망한 나머지 낯빛이 변했다. 그만큼 수시마를 사랑하고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빈두사라가 친위대장에게 물었다.

"어찌 했으면 탁실라가 안정이 되고 수시마가 나의 뜻대로 탁실라를 통치하겠소?"

"대왕이시여, 망갈라로이 형제를 수시마 부왕의 눈을 가린 죄로 참수해야 하옵니다. 화근을 없애면 수시마 부왕은 성민들이 원하는 통치를 할 것이옵니다. 탁실라에 예전 같은 소요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옵니다."

"화근은 빨리 뿌리 뽑아야 하오. 그렇지 못하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오." "소장의 생각도 그렇사옵니다."

"대장이 다시 탁실라로 가시오."

"소장보다는 더 적합한 인물이 있사옵니다."

"누구요?"

"수시마 부왕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 아쇼까 왕자님이옵니다."

"어째서 그렇소?"

"코끼리경주대회에서 보았사옵니다. 1등을 할 수 있었는데 형을 위해 양보하는 것을 보고 아쇼까 왕자님의 마음을 알았사옵니다."

"듣고 보니 그러하오. 대장이 아쇼까에게 탁실라로 떠날 준비를 하도록 전하시오."

친위대장은 곧바로 빈두사라 궁에서 나와 아쇼까가 머무는 별궁으로 갔다. 친위대장은 자신이 추천했지만 아쇼까 왕자의 반응이 궁금했다. 빠드마바띠와 결혼한 아쇼까는 왕자별궁에서 나와 작은 별궁에 살고 있었다. 〈계속〉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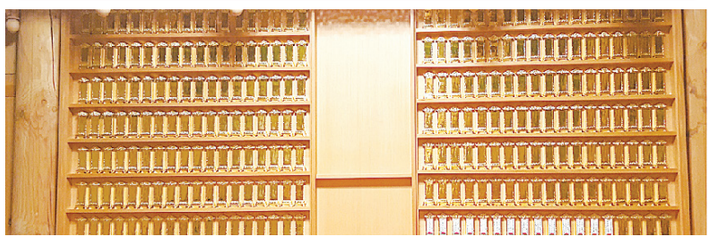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인쇄
주문접수 중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